’17년 6월

학 술 용 역 심 의 회 회 의 록

2017. 6. 14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작성자	조직담당관 : 김정호 ☎2133-6720 시정연구팀장 : 구재성 ☎6740 담당 : 설정환 ☎6747

’17년도 6월

학 술 용 역 심 의 회 회 의 록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14(수) 14:00~17:00

◆ 장 소 : 공용회의실(신청사 8층)

◆ 참 석 : 11명 외부위원(7), 내부위원(4)

◆ 심의안건 : 10건

◆ 심의결과 : 적정 6건, 부적정 4건

2017년 6월 수시 학술용역 심의회 진행상황

일시 2017. 6. 14. (화) 14:00

장소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간 사

안녕하십니까? 학술용역심의회의 간사를 맡은 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장 구재성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위 원 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예.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일동 박수!)

간 사

000 위원님은 조금 늦으시는 거로 돼있고요.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그리고 내부위원으로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사(시정연구팀장)

000 위원님은 일정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000 위원님은 일정상 불참하시고, 000 위원님도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13분 중에서 과반수인 8분이 참석하셔갖고,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고 계시는 000 위원님은 심의안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특별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 정책수립과 시정현황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안건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 6억8,700만원이고요.

신규가 7건이고, 재심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재심의 안건은 2번, 4번, 9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심의에서 부적정 의결돼서 재심의 요청된 안건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학술용역에 한해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학술용역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3년 평균 학술용역 93억 원 대비 10%를 감축 목표를 해서, 17년 2월 20%까지 감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 학술용역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심위원님과 내부위원의 안건별 사전검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서상에는 용역비 검토도 포함되어 있으니, 토의과정에서 연구비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과제별로 연구비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 6월 수시학술용역심의회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심위원님과 내부위원의 안건별 사전검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회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 심의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7년 6월 수시학술용역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안건이 있는데요.

2번, 4번, 9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총액을 여쭤보니까 저희가 조금 까다롭게 해서, 많은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남겨도 그렇게 별로 좋은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한번 쯤 생각하셔서 이건 해도 된다 생각하시면,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열 번째 안건은 늦게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안 받는 게 원칙이지마는, 시 적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심위원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주심위원이시니까요.

한 번 열 번째 안건은 더 신경 쓰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 다 아시는 문제지마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각 발표자들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있는 자리에서 적정, 부 적정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심위원님도 그냥 질문만 해주시지, 검토의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발표자가 퇴장한 후에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의 의결은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위원님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상 한 건당 발표 3분, 질의응답 5분~8분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여가 아마 소요될 것 같고요.

가급적 제가 5시 이전에 끝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토론할 게 있으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위원님이 급히 떠나셔야 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정족수만 해결되는 범위 안에서 이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시작하시죠.

제1호 안건

서남권 복합문화시설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표자 입장)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한 3분 정도로 빠르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호안건설명자

예, 청소년과 시설팀장 최형대입니다.

저희가 금천구인 서남권의 복합 문화시설 타당성 건립에 대한 기본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폐교된 한울중학교에 청소년드림센터를 이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민청을 건립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되겠는데요.

과업기간은 4개월이고, 용역금액은 수의계약범위인 1,65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한국기업평가 위탁하게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한울중학교 개요를 설명 드리면, 여기 폐교를 모두의 학교, 그다음에 드림센터, 제3시민청 이렇게 복합시설을 건립되게 됩니다.

지하1층에서 5층까지 해서 한 600㎡ 건립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게 선행연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센터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면서, 단독시설로 이렇게 짓는다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다시 계획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편익이라든

가 경제적 비용 이런 게 또 추가적인 용역이 돼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게 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000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위 원 장

말씀하시죠.

000 위원

지금 청소년 드림센터가 서울의료원에 있는 거죠?

제1호안건설명자

예, 강남 서울의료원에 있습니다.

000 위원

언제 이전할 건가요?

제1호안건설명자

지금 매각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소 시일이 걸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거기에 임시로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의 매각여부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저희들은 서남권에 시민청하고 드림센터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폐교를 활용한 그 시설을 복합화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갖고요.

이전은 체제는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000 위원

언제 이전하냐고요.

제1호안건설명자

강남분원은, 의료원분원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2021년 뒤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이천?

제1호안건설명자

21년이요.

000 위원

20년이요?

제1호안건설명자

20년에서 21년 사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매각하고 상관없이, 이때는 이전하실 거다 이거죠?

제1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지금 시민청은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제1호안건설명자

시민청이 거기가 제3시민청인데요.

단독시설로 각각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공공투자센터에서 '비효율적이다.'고 해갖고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해서 복합시설로 지어지는, 같이 지어지게 됩니다.

000 위원

시민청은 아직 공사가 하나도 안 됐나요?

제1호안건설명자

예, 지금 같이 되어야 됩니다.

투자심사도 아직 안되어 있고요.

투자심사서 내고...(19:37)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민청 건립 타당성 용역에다가,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이걸 덧붙여서 한다.'라는,

제1호안건설명자

지금 용역을 두 군데 용역을 끝냈는데요.

거기에 공공투자센터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덧붙여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1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 기존에 하던 용역에 덧붙여가지고요?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런데 시민청은 면적이 1,500㎡밖에 안 되고, 청소년드림센터는 그 면적의 3배나 된단 말이죠.

제1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덧붙여서 한다.'라는 게 이게,

제1호안건설명자

용역을 당초에요,

000 위원

예.

제1호안건설명자

같이 했습니다.

시민청하고 저희 드림센터하고 용역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한 용역업체에서요.

위 원 장

1,000만 원대의 용역인데요.

제1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이 정도면 AS가 가능한 액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하던 데가,

제1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뭔가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통상 이러면 AS차원에서 해주는 거라고 보면 안 될까요?

제1호안건설명자

그런데 이게,

위 원 장

꼭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제1호안건설명자

예, 왜 그러냐하면 비용이라든가 편익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조사를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걸 그냥 AS차원에서 해달라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000 위원

현재 청소년드림센터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제1호안건설명자

지금 6,000㎡가 되겠습니다.

000 위원

순수하게 드림센터가 사용하고,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있는 면적만 6,000㎡요?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런데 그러면 줄여서 가는 거네요?

제1호안건설명자

어차피 뭐 공간이 새로 짓는 건물에 크게 지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드림센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주로 드림센터가 뭐하는 데인가요?

제1호안건설명자

드림센터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로에 대한 지도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경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게끔 대체적으로 도와주는 청소년 사회복지라고 보는데요.

그게 대부분 단위별로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림센터가 지금 하는 거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합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시민청을 각 권역별로 실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남구나 이런 데 보면 시민청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지금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민청 건립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이 지금 짜여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또 강남은 뭐 다른 어떤 입지를 다시 찾아서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이거대로 가서 이거로 끝나버릴 것인지,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요.

제1호안건설명자

시민청은 지금 마스터플랜이 있고요.

000 위원

예.

제1호안건설명자

거기에 1호는 현재 서울시 본관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호는 강남에 SETEC에 하려다, 강남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부진한 상태지마는, 저희는 시민청이 3시민청으로 해서 중앙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000 위원

이거 계속 추진하는,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한 맥락에서 이것도 하겠다,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 말씀이시죠?

제1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예,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1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위 원 장

나가셔도 됩니다.

(설명자 퇴장)

제1호 안건 심의 23:40

위 원 장

주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예,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문화시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이다 그러면 '시민청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시민들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청소년과 다 쉐어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요즘에 청소년문제들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보완사항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문화시설의 용도가 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비용편익 같은 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몇 개 대표적인 게 구체화되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충 사업부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나 용도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타당성을 하면 어땠을까, 그런 내용 주안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구비가 조금 그동안 제가 여기 참여한 심사 한 것 중에서 가

장 적은데, 보통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타당성 검토 관련 연구용역하면 그래도 한 3,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4개월에 1,600 정도니까 금액이 과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특히 서남권의 청소년을 위한 이런 취지의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예, 뭐 000 위원님께서는 이미 질문을 많이 하셔갖고요.

000 위원님하고 000 위원님도 다 적정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언뜻 느낌은 AS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액수가 너무 적나 생각했는데, 혹시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그,

위 원 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 원 장

예.

000 위원

당초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데다가 엎어서,

위 원 장

그렇죠.

000 위원

이 과업을 준거거든요.

위 원 장

예.

000 위원

그래서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묶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서, 청소년용도하고 그다음에 시

민청을 위한 공간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동선도 조금 분리해야 되고 건축계획적인 부분은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업을 위한 비용은 줘야 되지 않겠냐?'

위 원 장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실비 개념으로 들어간 겁니까?

000 위원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존 과업에다가 얹어가지고 주는 과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다 전부,

위 원 장

예.

간 사

적정하다고 하셔가지고요.

11분 모두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위 원 장

예, 그러면 본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호 안건

서울특별시 시민력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설명자 입장)

어서 오십시오.

제2호안건설명자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기획팀장 이영순입니다.

위 원 장

예, 빨리 앉으십시오.

이미 저희들이 익숙한 안건이라, 뭐가 변했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호안건설명자

예, 시민력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지금이 두 번째 심의입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하셨을 때는 과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배경 일원이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과업을 추려서 재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 내용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조사하는 체계의 계획이라든지, 뭐 해외사례 연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개념 정리, 그런 용어 분석 그리고 지표개발, 그리고 활용방안 이렇게만 꼭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줄여서 이번에 다시 심의 용역 했습니다.

위 원 장

예, 한 번 우리가 얘기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질문,

위 원 장

예, 하십시오.

000 위원

첨부된 문서를 다 읽어봤는데요.

여기 평생교육정책관 이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개념 자체가

논의가 이렇게 여러 번 된 문서가 다 첨부돼서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시민력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약간 여기 설명하실 때는 마치 정책지표로 사용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논의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발적인 시민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측정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과업지시서랄까 연구계획서 안에서는 '모든 서울시의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력을 높이는가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논의가 확장되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제2호안건설명자

이게 작년에 1년 동안 이 시민력에 대한 그 의미하고, 그리고 지표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한 10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은 용역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를 들어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된다는 의견, 괜찮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이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서 그거 저희가 정리를 사실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력이라는 것은 시민의 역량을 조금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향상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뭐 공동체적인 삶을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량을 기르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정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용역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력이라는 것은 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든지, 어떤 주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표를 관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숱하게 하고 그에 대한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시가 하는 정책이 시민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시의 정책에 대한 지표를 한번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연말쯤에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역량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거의 연말쯤 의견이 모아졌었죠.

그래서 그것의 기준을 정하고 잡은...

위 원 장

그런데 아직도 조금 개념이, 그때도 우리가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저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팀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제2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프로젝트화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게 지금 사회 자본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같기도 하고요.

정책에 대한 순응 문제를 또 따지시는 건가, 또 그래서 참,

제2호안건설명자

그런데 결국,

위 원 장

예.

제2호안건설명자

공적인 것의 시민의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됐느냐를 지표를 가지고...

위 원 장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요?

제2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그러니까 시민력이라는 지표를 갖고 정책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전과

후를 시민력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2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코스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서 일단 그 기준을 잡아서, 교육이나 학습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학습기회를 많이 보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 원 장

혹시 그러면 여기에서 단어 시민력이라는 거를 빼고, 달리 표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2호안건설명자

그것도 과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용어부터 다시 재검토를, 그러니까 시민력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 지식과 교양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 지향을 한다라든지, 공동체 문제에 참여해서 실천하려는 우선 시민의 주체적 역량이나 아주 좋은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재해석해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시민력이라는 것을 개념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용어 자체도 시민력이라는 것을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할 것을 과업에 넣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네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2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주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예, 저는 사실 이걸 지난번에 제가 안 봤고, 이번에 처음 봤었는데요.

위 원 장

예.

000 위원

예, 일단은 개념 이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사실은 불명확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이 어떻게 시민의 역량이나 이런 능력을 강화 시켰느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뭐 그런 갈등 이런 것들, 뭐 소통 연대 나눔 이런 굉장히 추상화된 개념들이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조금 보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또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좋아지는가를 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스스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논의를 하는 게 적정하지, 정부가 지원을 해서 무슨 연구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영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 원 장

다른,

000 위원

일본 사례를 여기서 들고 있는데, 일본 사례가 그리 이렇게 좋은 사례가 아니거든요.

이를 테면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부가 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단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위 원 장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력이라는 단어를 빼고, 의도하는 게 서울시가 내놓는 정책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비포, 에프터의 어떠한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찾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노력이라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자꾸 이상한 단어에 몰입을 해서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쉽게 아마 누군가가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민력으로 하니까 오히려 개념이 더 이상하게 혼란을 야

기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도 그 단어를 빼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더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를요.

000 위원

저는 이게 일반적 저게 시민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관심은 예를 들어 정책이 성공하면, 그 자체가 시민의 역량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시민력 자체 때문에,

위 원 장

그러니까요.

000 위원

저런 그걸 보는 건 아니죠.

사실은,

위 원 장

예.

000 위원

이게 꼭 시민력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참여로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위 원 장

그렇죠.

000 위원

케이스에 따라서 둘의 관계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심지어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인데, '시민력 자체를 놓고서 이렇게 뭔가 개발하겠다,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 원 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개념,

000 위원

이거 자체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시민력이라고 하면 시민 역량일 텐데, 우리가 보통 역량을 평가할 때는 특정한 분야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볼 것이냐,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볼 것이냐, 정책의 포커스도 마찬가지로 특정 영역별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어떤 지표 자체를 개발을 한다라는 게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닌가.'

000 위원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평생교육에 한번 제가 조금 관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거에 조금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역량을 분야별로 진단을 해서,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분야별로 진단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많이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 원 장

저도,

000 위원

예.

위 원 장

그런 것 같은데,

000 위원

그러니까,

위 원 장

그거라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위 원 장

예.

000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진단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뭐 자기네들의 어떤 그 평생교육정책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가겠느냐, 뭐 그런 목적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000 위원

이게 지금 시민력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마련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적이고,

위 원 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000 위원

사고예요.

위 원 장

계몽주의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한 20년 전에 했어야 될 연구용역이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표현을 잘못한 건지, 저는 지금도 팀장님이 발표할 때마다 헷갈려 갖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런 것 같네요.

000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평생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위 원 장

글쎄요.

000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평가만 평생교육담당관에서 할 용역이 아니고요.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위 원 장

그렇죠.

000 위원

어떤 영역들을 더 보완을 하고 이래야 되는지, 그래서 교육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더 축적했는지를 보고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아마 이거 자체 개발한다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 모셔놓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정립된 개념이 아닌 상태에서,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내다보니까는 방향이 점점 이게 커진 것 같아서,

위 원 장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000 위원

그래서 뭐 정책에 대한 평가나,

위 원 장

예.

000 위원

막 이렇게까지 이게 커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발표자도 이게 회의를 통해서 일단 의견은 그렇게 접근이 됐고,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위 원 장

못하고,

000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위 원 장

주심위원님,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000 위원

제가 전문분야가 사실은 아닌데 이걸 맡아서, 저는 이거 말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읽어봤을 때는 자칫하면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어떤 지표개발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정부에서 하기는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딱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이라는 어떤 그런 정책의 결과로써,

위 원 장

글쎄, 저도 그거라면,

000 위원

하면 모를까,

위 원 장

하는데,

000 위원

지금 뭐 시민들이 갈등,

위 원 장

예.

000 위원

수용정도 뭐,

위 원 장

예.

000 위원

여러 가지를 다 믹스 업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제2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너무 실타래가 얽혀있어 가지고, 아무튼 그거 마음속에 두시고 표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한 분만 적정하다고,

위 원 장

예.

간 사

부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이 안건 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000 위원

투아웃 되면 다음부터는 못 올리는 거 아닌 가요?

또 올리는 거예요?

위 원 장

그런 게 있나요? 이게 투아웃 되면 안 됩니까?

간 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만일에 꼭해야 된다면, 조금 처음에 자기들이 하고자했던 대로 평생교육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든지 그 정도로 좁혀서 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연구용역 드릴 수 있다고 한번,

간 사

예.

위 원 장

뭐 말씀을 전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간 사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세 번째 안건 하죠.

제3호 안건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설명자 입장)

제3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장 심재욱이라고 합니다.

위 원 장

예, 앉으십시오.

제3호 안건설명자

담당주무관 같이 왔고요.

위 원 장

예, 앉으십시오.

팀장님 빠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호안건설명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부지 종합관리방안 연구 건인데요.

MICE가 서울시 육성해야 되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 학여울역 일대에 시유지에 SETEC이라고 전시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임시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SETEC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시시설확충하기 위한 어떤 복합개발안을 제안해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안이라는 게, SETEC부지 외에도 주변에 있는 탄천하수처리장, 그리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개발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SETEC부지라는게 학여울역 건너편에 은마아파트라든지, 그 주택지에 있는 그 부지인데요.

그런데 은마아파트로 할 것 같으면, 최근에 높이 완화라든지 도시계획 저희가 또 위원님 굉장히 큰 지역들이라 SETEC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지들, 그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양재천 건너편에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 가스공급설비 이런 도시계획시설이고,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제진흥본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현재 개발계획안을 수용하라하시면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그리고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 그 대상지는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상 중심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녹지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또 관리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이 용역을 통해서 SETEC부지의 전시시설의 도입하는 방안,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지역 일대 관리방안, 이것을 마련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SETEC일대의 MICE시설입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 지역일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공간구조 차원에서 거기가 현재는 녹지하고 주택지 안에 있는 SETEC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구조 측면에서 대상지 일대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 측면에서 북쪽에 있는 강남도심에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거기하고의 뭐 기능적인 연계라든지, 역할분담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 부지의 일부는 개포택지개발지구라고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뭐 이렇게 같이 돼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그 지역 일대를, 뭐 이를테면 제2의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그런 개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조정할지의 요구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이게 도시계획조정의 범위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역이 현재 보건대 대규모개발을 수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시시설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리고 필요한 지원시설을 어느 정도규모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방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고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부시장과 연속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시간 조금 진전을 시켰었는데요.
그 결과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 관련한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용역입니다.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예, 이건은 제가 몇 번 회의를 들어가 봐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 먼저 묻겠습니다.

경본하고 협의 됐나요? 이 주제와 분야에 대해서요.

제3호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000 위원

예.

제3호안건설명자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장님 하고 도시계획국장님도 별도로 만나서 얘기했고요.

000 위원

예.

제3호안건설명자

그다음에 별도로 TF를 구성, 운영하는 거로 아실 텐데요.

그 TF에서도 이 연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포괄예산을 활용해서...

000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랄지 이런 것도 경본하고 같이 할 건가요?

제3호안건설명자

물론입니다.

000 위원

예, 두 번째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1억3,000을 포괄비에서 사용하고, 내년에 또 뒷부분을 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제3호안건설명자

그래서 사실 이게 시급성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

지 대부분의 이슈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 됐을 때, 내년에는 사실 오늘 학술용역 심의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에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화하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검토할 내용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연석회의에서 나왔던 경본하고의 그 의견차이 있었던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제3호안건설명자

예, 금년 연내에 끝내는 걸 목표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000 위원

내년 용역은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제3호안건설명자

예,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구체화한다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을 위해서 내년까지 계획은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5월까지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의 학술용역심의도 필요할 테고, 타당성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위 원 장

예,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3호안건설명자

내년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예?

제3호안건설명자

1억3,000 정도요.

000 위원

내년도요?

제3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러면 총 10개월 정도 가서, 2억6,000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제3호안건설명자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발사업의 규모가 수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어떤 개발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도시계획적 정합성이라든지 이 탄탄한 그 기반 하에 출발하는 것이, 그 정도의 투자가 충분히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00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보게 되면 과업내용이 올해의 과업내용과 내년도의 과업내용을 보면, 올해는 현황을 분석하는 파트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관리방안 구성이 한 꼭지 정도 남겨져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가 여기 보면 더 큰 그림을 지금 사실은 담아야 되는, 그런 과업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3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종합관리구상 원투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내용적인 것들은 금년에 전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을 조금 약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3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제가 무식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반드시 학술용역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용역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제3호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000 위원

학술용역이라 하면, 이게 뭔가 데이터를 모아서 테스트하고 아니면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 내용은 지금 안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3호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간구조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역할을 재종합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할 필요성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엔지니어링 업체하고의 협업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술연구로 하되,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협업하는 구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가주셔도 됩니다.

제3호안건설명자

예,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

예.

(설명자 퇴장)

제3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처음 나왔습니다.

000 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이게 지금 도시본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본부에서 먼저 민간제안으로 들어와서 급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시장도 연석회의라고 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일부 2부시장 밑에 있는 도시국에서 진행하는 그런데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도시공간적인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끝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렇게 막 치다가 이렇게 과제를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걱정은 경본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이 과제 자체가 본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보완사항에서도 그런 내용을 조금 적어두었고요.

그 외의 다른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비와 관련된 것들 조금 코멘트 했는데,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조직의 어떤 문제 때문일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 원 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000 위원

그런,

위 원 장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000 위원

앞서 도시계획국하고 경제진흥본부 관련된 거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마이너한 부분인데 우리 학술용역 지침에 의하면 상여금, 이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가를 내 온 거보면 그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제3호 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 부분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3호 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학술용역 저도 저기 인건비, 뭐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과다하게 100%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여율이, 이런 면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그거는 주심위원님이 나중에 조금 여기 쓰는 란이 있거든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

거기다 그 의견을 용역비가 조금 과다된 것 같다는 식으로 써주시면, 아마 그게 반영될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의하기로 하고,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예, 다 적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위 원 장

예, 본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호 안건

수도요금과 시민생활의 상관관계 등 분석을 통한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설명자 입장)

어서 오십시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제4호안건설명자

예,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위 원 장

예, 이게 처음 나온 안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한 안건이니까, 과거의 차이점만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4호 안건 설명

제4호안건설명자

차이점이라기보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가 되었던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아마도 상수도 물 연구원 내에, '그 부서의 기능에 요금에 관한 기능 연구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연구원의 기능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물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인력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고요. 또 향후 나중에 인력을 보강해서 그런 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발표도 해야 되는데, 저희 기관에서 이거 아무리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위 원 장

예.

제4호안건설명자

실제 집행에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공사도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기관에 맡겨서 용역의 체계에 대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들끼리 의견 내보겠습니다.

제4호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제4호안건설명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4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4호 안건 심의 56:13

위 원 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예, 저는 사실 적정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적정하다고 본 이유는, 기존에는 사용량이나 기본 업종을 중심으로 수도요금을 부과를 해왔는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계층별이라든지 주택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패턴별로 한번 다시 볼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학술용역답게요.

그런데 그게 서울사업 물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과 겹친다는 의견도 있고, 기존 선행연구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연구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께서는 빨간 글씨로 쓰셨는데,

000 위원

이게 지금 물 연구원에, 사실 작년에 제가 00직을 맡을 때는 이게 전략

부였던 가요?

이 정도 규모로 있고, 자체 연구하는, 그러니까 전략부, 전략과가 하는 게 물산업의 발전방안까지 포괄하는 우리 상수도 산업에 대한 발전, 그리고 올해 연구예산만 해도 20억이 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000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구를 하느냐죠.

'이게 예산이 많든, 적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 있을 테니, 이 연구가 과연 거기에 있는 거냐.' 이 문제에 있었는데,

000 위원

그 부서에 업무 범위에 내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의 연구범위 내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인 거죠. 제 얘기는요.

제가 뭐 주심이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R&D가 뭐 19조인데, 그중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연구를 해야된다라고 정의 돼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데서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게 돼있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이 연구는 누가 하는 거냐, 해야 되는 거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해야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는 거라면 서울물연구원에서 이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슈만 논의가 되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000 위원

물 연구원에서 할 수 있죠.

시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000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게 시키실 수 있느냐는,

000 위원

예, 있죠. 그것은요.

그것은 부서의 고유미션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아까 담당부장님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요금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느냐,

000 위원

예.

000 위원

이 부분인 거지,

000 위원

그렇죠.

그 문제도,

000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000 위원

그 문제도 동일한 똑같은 문제죠.

000 위원

예.

000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연구고요.

위 원 장

그런데 객관화를 위해서 외부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000 위원

예.

위 원 장

어떤 면은 조금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000 위원

그렇죠.

물 연구원에서 내놓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위 원 장

안 믿을 거니까,

000 위원

생각이 있고,

위 원 장

하는데,

000 위원

그다음에 방향감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위 원 장

그거는 뭐 말이 전혀 틀린 그것 같진 않지만, 또 돈 주는 갑의 입장에서 을한테 시키는 건데, 을이 갑 말을 안 들을까 하는 생각도 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일 것 같은데, 000 위원님께서는 뭐 논의 필요라고 하셨는데, 결국 같은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000 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글쎄요.

업무용역 자체가 여기에서 못할 거는 없고,

위 원 장

그렇죠.

000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하기 굉장히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게 같이 혼합이 돼서, 용역 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위원님들 의견 같이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 원 장

참 이거는 암만 밤새 얘기해도 해결은 안 될,

000 위원

답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제4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의견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갖고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여기서 끝나고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7분 찬성을 하셔갖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위 원 장

예, 이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하기로 하겠습니다.

000 위원

참고로 저는 물 그 사람들하고 뭐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수 위원 웃음)

(설명자 입장)

위 원 장

그러시죠.

000 위원

전혀 없어요. 단 1원도요.

000 위원

큰돈도 아닌데,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5호 안건

가락시장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교통 종합대책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제5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예, 앉아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짧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호 안건 설명

제5호안건설명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련팀장 김형금입니다.

가락시장 주변 교통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제5호안건설명자

저희 가락시장은 85년에 가락시장 개장식 1일 평균 한 4,500여톤의 처리용량으로 설계됐는데요.

지금 32년이 지난 지금은 그보다 한 77%가 늘어난 8,000톤으로 늘어났고, 이용차량으로 보면 1일당 20,000대 정도였으나, 지금은 한 60%가 증가한 32,000대 정도로, 근본적으로는 수용한계를 넘은 물량과 차량으로 인해 가락시장 주변의 화물차 주정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락시장 주변의 그런 대규모 개발 뭐 위례, 문정 등 이런 것도 가까이에 있는데 가락시장과 같은 재건축 등으로 교통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가락 농산물도매시장 주변들에 대한 교통종합대책 접근 수립으로, 이용계획 및 주민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재건축과, 이런 만성적인 물류혼잡과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25년까지 17년간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현재화 사업인 가락몰이 완공되어 사용 중에 있고, 금년 말부터는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화물차량의 입출입을 달리하는 공동배송장이 완공되고, 주차면수가 현대화 이전 대비 2배 난,

한 9,100㎡로 가락시장 주변의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사라져, 지금과 같은 혼잡은 없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내용으로는 연구 과업은 가락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주변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개선 대책방안과, 탄천 동측 확장도로 계획의 적정성 검토, 탄천 동측도로에서 가락시장 진출입로로 연결되는 방안 검토, 가락시장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대책과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를 고려한 주요 도로 교통시뮬레이션 분석, 기타 가락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 흐름도 조사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제출해 주신 그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미 이 지역이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또 계획이 되고 있거나 어쨌거나 조금 향후 개발 여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약간 유사한 개념의 용역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차별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기존 다른 과업에도 조금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질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과연 차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조금 그런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저는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다른 용역들과 정말 차별성, 거기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5호안건설명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사실 가락시장이 최초에 원래 개장할 당시 이후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주변에 주로 보면 저희 그쪽 훼밀리아파트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중간도로를 중대로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화물차량들이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도로에 그런 가장자리 차선에 대고, 그냥 하역이랄지 이런 등등의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보면 4건의 그런 유사형의 저희 시의 도로과랄지 교통과, 또 송파구청, 가락시장 저희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단계별로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락시장만을 위한 그런 용역은 쉽게 말해 주변까지는 없는 딱 없는 것 같고, 4건의 용역도 앞으로 발생되는 도로랄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다른 유사형의 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도 여러 가지는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런 난해한 사항이 있습니다.

000 위원

제가 그 근처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아는데요.

제5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 도로에 혼잡이나 불법 주청자 이런 거는, 현대화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질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지금 현재까지 비교를 해 보면, 이용자가 늘어서 그 안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몰을 만든 데는 주차장이 뭐 지상 2층 이런 데 만들어져가지고요. 오히려 훨씬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대식으로 재개발하면서 주차장시설 같은 경우 평면이 아니고 입체로 만들면, 아마 그런 주변의 그거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거기 훼밀리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9호선 공사 때문에, 그래서 불편해 하지,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70% 늘어서 불편하다는 거는 내부 문제예요.

내부에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상점하고 뒤엉켜가지고, 그래서 그냥 불법으로 대놓고 잠깐 가서 볼일 보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엉키면 막 불편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새로 지은 쪽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요.

가면 그쪽에다 주차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4건의 용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주변 커뮤니티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건물 사이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현대화 복합화 하면서 수요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거에서 저는 그 부분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도로가 다 넓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9호선이 옆에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공사로 인해서 그런 불편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거예요.

위 원 장

예,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팀장님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제5호안건설명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제5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주심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000 위원

제가 여기 기재해 놓은 것처럼 사실은 이게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발주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 연구용역에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시에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거기에서 담을 수는 없는 건지, 요구해서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만 특화해서 별도의 용역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을 수 있다 그런다면 이걸 굳이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 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원 장

이게 도시농업과에서 교통 문제까지 프로젝트를 하면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너무 미시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고,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000 위원님 께서 논의 필요라고 오랜만에 말씀하셨는데요.

000 위원

여기가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해 오면서, 2010년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었고요. 현대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측으로 해 가지고 이 출입구가 주차장이 드나드는데, 향후에는 서측으로 해서 출입구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주출입구가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탄천 동측 도로 쪽에서 현재 도로개설과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고, 교통운영과에서도 지금 송파 축에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교통 환경개선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도 관련된 교통 소통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업에서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특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000 위원

그런 거 빼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닌가요?

000 위원

입구가 변경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수요가 생기는데 탄천 동측도로가 개설되는 거는 사실 삼성교 위쪽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그 밑에는 사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좀 더 특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위 원 장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도시농업과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000 위원

이게 가락시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농업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혹시 도시농업과가 교통과나 그쪽으로 좀 이 문제,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하는 김에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000 위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 과업내용에다 넣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위 원 장

저도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000 위원

그런 게 어렵나요?

위 원 장

어렵나요? 저는 그게 참,

000 위원

이게 스토리를 ...

위 원 장

뭐가 있죠?

000 위원

마지막에 얼버무리고 간,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표기는 어디에 있냐면, 추진배경을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훼미리아파트 사정, 그다음에 현대화 시켜 가지고 훨씬 그런 수요가 없어졌다, 교통에 대한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메인뉴스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수화물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옆에 쌓아 놓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185페이지 추진배경이 나오게 된 거지,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흐름은 기존 연구용역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 용역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000 위원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000 위원

아마 결자해지, '니네가 문제 일으켰으니까 니네가 직접 해결해라.' 하는 차원에서 도시농업과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00 위원

이게 2단계 현대화가 내년부터 들어가고 하면, 불법 주정차 되는 부분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000 위원

최선책이 그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화해 놓으면, 신속하게 하역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5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예, 그럼 이건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한 분 계십니다.
다음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안건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지원 방안 연구

(설명자 입장)

편하게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제6호 안건 설명

제6호안건설명자A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에 예술교육팀장 김동섭입니다.

제6호안건설명자B

안녕하세요.

권유정이라고 합니다.

실무수습이라서 직함이 없습니다.

위 원 장

예, 이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제6호안건설명자A

예. 저희가 제안한 용역은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지원 방안 연구이고요.

올 1월에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책무고요.

기본계획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000 위원

이 과업내용을 보면, 사실상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는 전문

예술가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즉 장애문화예술 활동, 장애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실태조사 이렇게 두 가지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문화재단에 잠실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전문 문화예술인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를 중심으로 뭔가 장애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조사가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셔서 이 사업을,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6호안건설명자A

지금 첫 번째 질문사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은 사실 크게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활동이라는 건 장애인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술활동이면 전문예술인으로서 육성하는 활동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전체 장애인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에 용역계획에 다 넣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지원을 위해서 용역, 어떤 실제 시행을 하게 될 때는 문화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그런 기본계획으로 국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잠실 창작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장애인 예술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서울시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사실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위 원 장

그럼 이런 연구는 대충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를 전공하는 기관에서요?

제6호안건설명자A

저희가 기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실은 기관을 공모할 예정이고요.

보통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유사한 장애인 관련 연구된,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사례가 있어서 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가 그런 특유의 어떤 장애인 분야의 연구를 하신 산학협력단의 교수님들은 연구를 수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연구원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6호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000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우리는?

제6호안건설명자A

기본계획이요?

000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제6호안건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나 샘플을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특정 샘플링을 해야 돼요?

제6호안건설명자A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장애문화예술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해서 장애인의 예술욕구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6호안건설명자B

약 500에서 600케이스 정도로 했었어요.

원래 원가계산서에는 1,000케이스로 해 가지고 단가를 한 케이스당 7만원을 잡아서 그러니까 7,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7,700만원 정도를 잡

아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300케이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제6호안건설명자B

예, 전국적으로 있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장애인 비율이 많고 인구 비율이 많다 보니까 한 반쯤에서 약간 덜 되게 서울 케이스가 되는 거죠.

000 위원

이게 샘플링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4,500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제6호안건설명자B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6호안건설명자A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000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조사만 하는 것도 저기인데 좋다 그러지 마시고, 실태조사라는 것도 그런데 그 밑에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뭘 건립을 해요?

위 원 장

지원기관.

제6호안건설명자A

지원기관.

000 위원

기관 설치 모델도 4,500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막노동하라는 얘기인데요.

제6호안건설명자A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 과업의 범위는 저희 조례에서 시장이 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은 모두 담아내는 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았고요.

이것이 올해 1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이

렇게 예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저희가 용역비를 요청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7,000만원 선에서 6개월로 당초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위 원 장

액수만 줄였군요.

제6호안건설명자A

예, 액수를 00과에서 판단을 해주셔서요.

위 원 장

범위도 줄일 용의는 있으세요?

제6호안건설명자A

지금 저희가,

000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어렵죠.

제6호안건설명자A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사례가 없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는 정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지원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는 별도의 과제로 가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용역 범위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없으시네요.

그럼 저희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6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결국은 교수님 말씀대로 범위 문제를 쪼개는 게 제일...

000 위원

조사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위 원 장

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조사 ...

000 위원

실태조사만 하고 연구 인건비를 올려서라도 조사비용을 책정을 하고,

위 원 장

인건비를 늘릴 수는 없는 거죠?

000 위원

조금 늘려주시는 게,

위 원 장

늘려주시면 안 돼요?

00과에서 깎으신 거 아니에요?

000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 원 장

00과에서 깎으셨어요?

000 위원

학술연구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주제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담습니다.

별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위 원 장

그럼 저희들이 이걸 나누어서 '예산을 더 해라.' 그러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000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는 거죠.

위 원 장

아, 그럼 또 안 되겠구나.

000 위원

예.

000 위원

이거는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 ...84:10 기본계획 안에 이런 센터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설치에 관한 거하고 기본계획이 엮여 가지고 보통 하나가 과제가 되고, 그전에 이걸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쪼개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치, 지원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내용까지 같이 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 원 장

그럼 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요한 연구일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적은 액수로 하면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고,

000 위원

굳이 필요성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딱 당장 올해에 해야 된다, 내년에 해야 된다라는 법적 요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조례가 제정됐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짜라고 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년 초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위 원 장

그러면 주심교수님이 실태조사를 먼저 정확하게 하고 그 후에 뭘 해라 하는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000 위원

그럼 실태조사만 한다고 하면, 학술용역보다는 일반용역을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위 원 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000 위원

실태조사하고 서울시 장애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까지 가면 될 것 같고

요.

내년에 기본계획과 문화예술 교육지원 ... 이렇게 가면

위 원 장

그런 식으로 하면, 학술용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주관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위 원 장

그렇게 하죠.

000 위원

용역을 범위와 우선순위를 자기들도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위 원 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주심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을 국한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000 위원

예.

000 위원

이 부분은 아직, 처음 조례가 되면서 일단 기본계획부터 해야 된다는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정을 하긴 했는데, 서로 간에 설명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업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 원 장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약간 보류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까?

000 위원

뭐 의견 자체가 지금 일단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요.

위 원 장

심의를 해 드리는 게 저분들한테는 편하신 거죠?

000 위원

예.

과업범위에 대해서는 ...

위 원 장

추후 논의를 한다.

000 위원

조정해 가지고 확정하는 걸로,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000 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 최종 정리된 것 주심 위원님하고

제6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그럼 이건 심의하는 걸로 하죠.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만장일치로.

위 원 장

그러면 이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님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예.

제7호 안건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

(설명자 입장)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제7호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영우입니다.

위 원 장

팀장님 앉으십시오.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호 안건 설명

제7호안건설명자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메이드라는 것 자체가 영어라 좀 그런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확실히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통칭해서 핸드메이드라고 하고, 공예와는 조금 구별되고 쓰고 있는 게 공예는 단순한 상품을 얘기하는 거지만, 핸드메이드는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그것을 핸드메이드로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도자기, 목공, 유리공계, 금속공예 등 손으로 만드는 것들로 주로 상품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시민시장, 야시장, 핸드메이드 및 공예 마켓 이런 여러 가지 마켓으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생태계는 조성되어 있고, 특히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마켓들은,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마켓들은 관 주도로 해서 위탁사업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공유지 사용 장소 한계로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최가 현재로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켓들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일원화된 정책하고, 정책과 장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연구명은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화 장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로 되어 있고요.

연구기간은 6개월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산출을 했고요.

여기 연구기관은 현재 서울연구원이 여기에 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업내용은 시민시장, 야시장, 핸드메이드 및 공예 마켓의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이 있겠고, 마켓 개최 관련 제약요인, 문제점, 서울시의 지원정책 검토, 향후 마켓의 발전방향, 활성화 방안, 중장기적 비전 수립,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 정책방향과 지원정책, 장기플랜 마련 이런 것들을 과업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연구결과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처럼 중장기적인 비전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핸드메이드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이 과제는 왜 중복연구 이런 보고서가 없나요?

제7호안건설명자

기존에 했던 연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가 하는 거고, 핸드메이드 마켓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했는데 기존에 된 연구 자료는 없습니다.

000 위원

기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제7호안건설명자

그거는 문화정책과에서 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공예문화산업 부분은, 그쪽 부분은 주로 전체적인 공예산업의 서울시가

공예산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 거고요.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7호안건설명자

실태조사 부분도 거기 부분은, 포괄적으로 너무나 추상적 포괄적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종점으로 하려고 하는 게 수요적 측면에서는 욕구를,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부분, 그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상품을 어떠어떠한 상품이 소비자한테 좋은 반응이 되겠느냐.

품목을 어떤 품목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다음에 마켓이 가능한 지역, 고객접점이 있는 지역이 어디가 적당하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가능한, 창출이 가능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거기는 사실 실태조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사항, 실태조사뿐이 아닌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000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시장이라고 표현된 부분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핸드메이드 제품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제7호안건설명자

야시장은 지금 운영되는 게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품목을 다 밤에만, 그래서 야시장이거든요.

밤에만 한정해서 팔 수 있게,

000 위원

주로 음식물 팔지 않아요?

제7호안건설명자

음식물도 팔고 거기에는 수공예, 핸드메이드도 팔고 여러 가지 종목이 다 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이것과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000 위원

전통시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7호안건설명자

전통시장은 기존에 재래시장을 하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기성품, 핸드메이드처럼 수공예품이 아니라 대량 생산된 품목을 위주로 팔고 있고, 음식이라든가 그렇게, 즉석음식 그렇게 ...94:36

000 위원

너무 고정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7호안건설명자

전통시장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000 위원

공예품 이런 건 없어요?

제7호안건설명자

예,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상인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성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하는 거지, 이런 핸드메이드에 관해서는 거기서는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핸드메이드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000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질문하십시오.

000 위원

이 핸드메이드 마켓 활성이라고 하는 게 중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물품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7호안건설명자

만드는 부분과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 판매할 공간도 제공해 주고, 그런데 지금 사실 판매할 공간들이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들은 일상적인

상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몇 시간 주말이라든가 몇 시간 동안 프리하게 장이 열릴 수 있는 공간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000 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궁금한 건 그러면 이 핸드메이드 제품을 위한 일회성, 단발성 판매를 위한 장소를 만들어 준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다른 제품 같은 경우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만드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7호안건설명자

그런 거는 아니고요.

000 위원

그럼 왜 핸드메이드 마켓을 위한 특정 제품을 위한 이런 활성화 플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

제7호안건설명자

핸드메이드가 특정한 어떤 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핸드메이드 제품을 그렇게 판매하게 일시적으로, 상설로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도록 그런 공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적 제한이라든가 그래서 지속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이분들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업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룹에서, 단체에서 할 때 여러 한 50개에서 100개, 100개 정도는 아니지만 50개 정도의 그런 회원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쭉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전제는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직접 만드는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수요가 있으면 한다라는 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이 돼서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위 원 장

예,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7호안건설명자

조사는 국내조사는 일단 소비자, 구매하는 쪽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하는 거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부터 처음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

000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이거 수의계약을 하죠?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나요?

제7호안건설명자

서울연구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정책과에서 공예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데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공예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가 그래도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000 위원

아닌 듯 한데,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잘할 수 있는 직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7호안건설명자

서울연구원 말고요?

000 위원

그렇죠.

시장 쪽으로 올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 원 장

000 위원님

000 위원

예.

공예하고 핸드메이드하고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나요? 분리가요.

제7호안건설명자

지금 현재 엄격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예는 산업적 측면이 크고요.

핸드메이드는 상품의 예술성을 가미한 부분들을 해서, 핸드메이드라고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시장, 야시장,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거,

제7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대부분 우리가 공적지원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7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런 마켓이 지금 공공 부문에서 지원하지 않는 마켓도 많이 있나요?

제7호안건설명자

시민시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 없이,

000 위원

지하에 있는 거?

제7호안건설명자

아닙니다.

000 위원

시민청에서 하는,

제7호안건설명자

그거 말고요.

시민시장이라고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임시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조례에서 시민시장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이 상설로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시장을 통칭해서 시민시장이라고 합니다.

조례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시민시장에서 그런 일부의 마켓은 들어가 있습니다.

000 위원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체크를 하는 마켓과 그렇지 못한 마켓의 비율이 다른가요, 많이?

제7호안건설명자

시민시장은 예산지원은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덕수궁 돌담길이라든가 그런 데 하는 것은 일부 위탁금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000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많은 부분이 실태조사인데 지금 우리가 다 지원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라고 하면 구태여 실태조사에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7호안건설명자

그 실태조사는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실태, 현재 있는 상태만이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에서 한 실태조사는 현재에 있는 상태만을 조사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거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형태로 가려면, 수요와 공급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000 위원

전반적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없는 수요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조사방법이 좀 염려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쟁점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정책방향은 결과적으로 공간들, 지속적인 장소성이 아닌 잠깐잠깐의 공간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제7호안건설명자

공간들을 지속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해서 그 공간에서 이분들이 3년이고 5년이고 할 수 있는가 부분까지를 공간에 맞는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제7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런데 지금 푸드트럭이 가장 큰 문제가 공간을 내놔도 이해관계 충돌되고 법규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제7호안건설명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공간들을 확보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그런 부분, 성과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 데는 지양을 할 거고요, 나중에 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곳들을 찾는 작업이 연구에서 포함이 되겠죠.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000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해외 조사를 ...런던 등 3개 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데가 타이완 같더라고요, 대만.

오히려 거기서 공예품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런데,

제7호안건설명자

예,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서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위 원 장

질문 더 이상 없으신 것 같네요.

저희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제7호안건설명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7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정부가 이거를 개입해야 되나요?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왜 굳이 우리가, 이분들이 알아서 활성화시키면 그걸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게 저 양반은 한 20년 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0 위원

본질적으로 수요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조사인 것 같아요.

위 원 장

글쎄요.

그러니까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000 위원

핸드메이드라는 것도 개념이 불명확하고 ...,

위 원 장

그렇죠. 예.

000 위원

공예라는 것도 불명확하고, ...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창작된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냐.

이게 철저하게 이런 마켓이야말로 그야말로 창의성,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이런 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000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은 이런 영역들, 핸드메이드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다양하고 조그만 것들이 활성화될 때 도시가 좋아진다.

걸을 만한 도시가 되고 밤에 나다니는 도시가 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거냐, 그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태조사를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이 이슈가 별도로 있고요.

대안을 예컨대 아까 전통시장 여쭤본 거는, 공간이 없으면 밤에 문 닫는 장소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누군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저 양반이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적정하다고 봤는데 일을 하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000 위원

저도 이 문건을 보니까 이게 시장님 요청사항이고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000 위원

그렇죠.

000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핸드메이드 제작업자들이 사회적 약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팀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해서.

000 위원

... 여러 지원시설들이나 공간들이 있거든요,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

000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 사례들을 좀 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 이런 얘기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나는 저 양반을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000 위원

어쩌면 이런 연구를 서울연구원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위 원 장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되는 무슨 법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이 소상공인들이,

000 위원

이해관계...

위 원 장

개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문제지, 자기가 이렇게 장을 벌여놓고 여기에 뭐 팔아라, 저거 팔아라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 양반이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위 원 장

답을 이상하게 하시니까요.

000 위원

얘기가 나오는 게 되는 게 일단 쉽게 얘기하면 푸드트럭부터, 일단 우리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었잖아요.

위 원 장

예.

000 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규제뿐만 아니라 영업장소에 대한 이해관계 ...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규제를 푸는 게 다냐.

그러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핸드메이드라는 산업의 영역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벼룩시장식으로, 아니면 몇 명 모여서 길거리에서 이러는

형태들, 이거보다는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활성화시켜서 양성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어느 산업에 집중적으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활성화의 의미로서 이 용역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000 위원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무부서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믿고 맡기냐고요.

000 위원

...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제가 아까 포션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대부분이 지금 최근에 핸드메이드는 관내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행사 개최비용을 지원하든지 해서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는 거의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선진국들 아까 타이, 프랑스 이런 데에서 활성화됐다고 하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필요치 않는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000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위 원 장

000 위원님하고 000 위원님이 과업지시서를 다시 써주세요.

두 분이 이해를 하고 있고 진즉에 하셔야 될 분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럼 이렇게 됐는데 한 번 정도 다시 기회를 드려서,

위 원 장

한번 기회를, 보조를 할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고 오라고 해야 되나?

000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류되면 다음번에 와서는 상급자가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아까 시민력처럼 똑같은 사람이 계속 와서 설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7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일단 심의는 하겠습니다.

심의는 하는데 저는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위 원 장

이건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000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조금 더 과업내용을 구체화하든지 해서 하는 쪽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 원 장

하셔서 다시 하시라고 하죠.

000 위원

취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업내용에 대한 ...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라는 게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니까요.

위 원 장

예.

자, 여덟 번째 하겠습니다.

000 위원

핸드메이드 마켓으로 한정을 지어야 되나요?

다양한 아이템들을 같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얘네들만, 물론 시장님이 지시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위 원 장

그 핸드메이드를 포함한 그런 식이 되든가 하려면 한꺼번에 ...

000 위원

공예하고 핸드메이드하고 차이도...

000 위원

공예하고 핸드메이드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핸드메이드의 한국말이 공예잖아요. 수공예.

000 위원

이거 심의사항은 아닌데요.

도대체 왜 시에서 하는 모든 연구들이나 정책을 만들 때 이 따위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갖다 쓰는 건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000 위원

맞아요.

000 위원

아니 이게 서울에서 조금 전에도 올라왔는데 아이서울유,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거 무슨 뜻이냐고 묻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영어에 대한 집착도 아니고,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000 위원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글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영어밖에 쓰지 못할까.

위 원 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시죠.

(15시48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 원 장

다음 안건 하지요.

제8호 안건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설명자 입장)

앉으십시오.

발표자께서 소개해 주시고요.

제8호 안건 설명

제8호안건설명자

경제진흥본부의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입니다.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봉제산업은 대표적으로 도시형 소공인 업종입니다.

그리고 패션산업의 기초가 되고, 많은 일자리를 흡수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1만4,000여 개의 봉제업체에 9만여 명이 지금 공식적으로만 종사하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3배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8개 자치구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요.

본 학술용역은 첫째, 봉제산업의 구별 주력 품목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정책수요를 체계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지역별로 맞춤형 봉제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을 하고, 자치구 협업 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자치구별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이라, 다소 비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큰 밑그림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 참고로 동부권의 8개 자치구청장님들이 모임을 발전협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레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 간의 협약식을 통해서 봉제산업 지원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봉제산업의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책적인 요구에 대응을 하고, 우리 시의 지원과 역할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패션산업의 근간이면서 또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할 하는 봉제산업을 시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금천구하고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거기에 의료판매 업체들이 들어가 있었고, 원래 그 업체들이 입주할 때 조건이 ... 만들어야 돼서 하는 ...

그랬다가 산업단지공단에서 나가라 그래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회에서 ... 가 가지고 저는 시하고 구청 편을 들었고, 그때 산자부 쪽에서는 ... 나와서 나가라.

안 나가면, 이미 벌금이 수억이 ... 됐어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IMF 끝나고 거기에 아파트 ... 디지털산업단지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봉제공장이 불식한 거예요.

그래서 ...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나가라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시한이 있는데 안 나가니까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금천구하고 구로구, 서울시에서는 니네들이 원래 문제를 만든 건데 서울의 패션산업을 왜 죽이려고 하냐.

...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왜 거기가 빠졌는지, ... 상당한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8호안건설명자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에 대부분 많이 ...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마포, 용산, 중구에도 일부가 있고 한강 이남에는 주로 금천구에 말씀하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동부권에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일부 자치구는 구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놓은 데도 있고 전혀 실태도 조사를 안 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구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어떤 구는 스웨터를 전문으로 하고 도봉구는 양말 같은 것을 하고 이런 특성이 달라서,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동부권에 구청장들 협의체를 해 가지고 시에 이러저러한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금천도 동부권에 8개 구와 유사한, 가장 유사한 구의 특성을 찾아서, 나중에 지원방안을 할 때는 함께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8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다른 질문?

000 위원

사실은 봉제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재정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327페이지에 과업내용하고 목적은, 결국은 목적이 서울시의 봉제지식산업센터 타당성을 하겠다.

과업내용은 상당히 봉제산업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목적은 굳이 산업센터를 어떻게 만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하려는 건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뭘 하고 싶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8호안건설명자

327페이지 중간에 중랑구 봉제사업은 특정 자치구별에 중랑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많이 한다는 것을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000 위원

326페이지 보시면요.

제8호안건설명자

26페이지요?

000 위원

목적에서 결국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

000 위원

지금 326페이지 목적에 보면 중랑 버스공영차고지를 활용해서 봉제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걸 타당성한다.

그다음에 328페이지를 보면, 본 과업내용서는 중랑 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가 혼선이 온 건지,

제8호안건설명자

예, 죄송합니다.

326페이지가 이건 다른 용역이 있는데 아마 제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이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이고 죄송합니다.

이 용역은 8개 자치구에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산업센터 용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 원 장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자치구별 지원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자체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아마 안건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용역으로 하실 필요가 없이 과장님이 직접 조정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용역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8호안건설명자

구청에서 이러저러한 봉제인들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구청에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주로 관내에 앵커시설을, 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라든지, 예산을 좀 더 달라라든지, 일감을 달라라든지 이렇게 파편화된, 당장 자기들한테만 구체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책도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대응을 해왔다면, 그동안 용역도 보면 패션산업 발전에 대한 용역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의 봉제산업을 낱낱이 실태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군데 봉제지원센터가 있죠.

시에서 건립비도 주고 최근에 운영비 1, 2억씩을 주면서 벌써 한 2, 3년 전에 봉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구가 된다고 하면, 시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인 건가요?

제8호안건설명자

이것은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물론 여러 정책 대안 중에 앵커시설을 만들겠다,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후보 대안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어떤 센터를 건립하고 예산 투입이 얼마 될 것이

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펀딩을 시비로 할지, 국비로 할지, 자체 구비를 매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는 추후에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은 실태조사와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구체적인 대안 모색 이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0 위원

작년 하반기에 서울 ... 제조업 실태조사라는 용역을 한 게 있지 않았나요? 작년 하반기에요.

거기에 봉제산업은 빠져 있었습니까?

제8호안건설명자

그게 아마 우리 본부 내 경제정책과에 도시제조업 그쪽에서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제 쪽에 다른 용역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00과에서 확인 한번 해봐 주시죠.

담당 주무관

예.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8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주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제가 작년에 시의회에 일 때문에 중랑구 봉제산업 실태를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중랑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더라고요.
업체나 고용주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뭐가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하나는 영세합니다.
그다음에 50대, 6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 중심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인력이 충원이 안 돼요.
아까 아웃도어 있었는데, 그중에 머리가 반짝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불법,

000 위원

디자인 카피.

000 위원

예, 그런 거 해서 처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건 적정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전에 서울에서 한창 중요한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패션산업인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쪽에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별로 아까 지역별로 만드는 제품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밸런스도 맞춰주고 거시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아주...

위 원 장

그런데 이 연구 예전에 한번 한 거 아닙니까?

000 위원

저도 가장 근래에 도시제조업 연구가 4개 분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 원 장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영주자창 그게 분명히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000 위원

그게 통과됐던 안건이에요.
중랑 차고지 그 건이고요.

위 원 장

그것만 하는 거고 이건 전체로 하는 거고?

000 위원

전체 하겠다는데 아마 거기에다가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일부는 그냥 손 안 대고 그대로 넣은 것도 있고,

000 위원

일단 성의가 없어요.

위 원 장

그런데 사실 이게 지원전략은 이미 자치구에서 준 걸 갖고서 여기서 자체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000 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는요, 구청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무관심하대요, 그 현장에서.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는 분들이 소규모의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사실은 이게 성격상으로 보면 구가 지원하고 관리해야 될 거거든요.

위 원 장

조정만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지금 시에서 각종 지원센터들을 서부에도 만들어졌고 금천, 성동 여러 군데 만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디자인재단에도 여기저기에다가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실태조사는 저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부분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청의 지역경제과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구와 시와 디자인재단 여기의 어떤 역할 관계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연구해야 될지 아니면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저희들은 부서에서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요.

000 위원

그러게요.

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저도 종로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쪽 창신동 이쪽하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도 봉제 관련된 게 많고 중랑구 쪽에 해서, 동부권 쪽에 그런 봉제산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쪽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그래서 동대문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패션산업과 연계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굴뚝 없이 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산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개 구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8개 구만 지원하다 보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원 장

그럼 굳이 봉제산업으로 하지 말고 자치구별 산업에 대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000 위원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다 조사한 건 있고요.

봉제산업만 특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싶다는 의견 같습니다.

제8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일곱 분이 찬성하셔서 의결되었습니다.

위 원 장

예, 본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제9호 안건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 개선 학술연구용역

(설명자 입장)

어서 오십시오.

제9호 안건 설명

제9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장 홍순옥입니다.

위 원 장

팀장님, 저희가 익히 아는 안건이기 때문에 차이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9호안건설명자

예, 지난번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종사자 처우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태조사는 3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이 연구용역은 전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서울시는 대도시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일례로 요양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서비스 체계, 현지조사도 그 보험공단

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야 될 부분 역할 정립을 정확히 해서, 제도 개선 요구할 것, 법 개정 요구할 것은 중앙에 요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서,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실태조사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나요?

제9호안건설명자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이라든지 거기서 받는,

000 위원

3년마다 실태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보험공단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9호안건설명자

아, 그거 보험공단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000 위원

아,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제9호안건설명자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해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다른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결론적으로는 질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 용역 체계는 전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지금은 중앙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역할을 명확히 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출하고자 합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논의, 이전에 보류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양보

호사 실태조사를 일단 실시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심의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게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절대 파악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하고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재가서비스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어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는 필요성만 있고 문제제기만 있고 이 연구를 어떻게 실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조금 헷갈렸거든요, 보면서.

제9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구를 하실 예정인지, 보니까 인건비만 책정이 돼 있고 조사비도 없고 거의 없는 거예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럼 그냥 실태조사나 아니면 서비스 체계에 대한 거를 문헌으로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조금 파악하기가 이 연구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제9호안건설명자

저희는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는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처우개선 쪽으로 갈 부분이고, 이 요양

서비스 체계는 전달체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장기요양보험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개입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다 보니까 이익추구의 문제하고 상충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000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하실 거냐고요.

제9호안건설명자

그래서 지금 현황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현황도 분석하고, 그러면 물론 재정 부분도 있겠고 또 인력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되는 사업 서비스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요양수가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기관장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처우에 대한 문제도 계속 되고 있으니, 그거를 현장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이게 분석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처우 관련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전달 체계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가 분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중앙에서 역할이 지금 다 맡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효율성 부분에서 맞지 않고 분담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거기에 정부에 요청할 건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할 것들은 하고,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체계를 한번 마련해 보자 이거거든요, 서울시만의 운영체계.

000 위원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를 ... 할 수 있을 만한 현황 자료들을 조사도 안 하고 도대체 뭘 갖고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 질문은.

제9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런 구체적인 연구계획이 없이 그냥 인건비만 주고 연구자한테 일임해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오시오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 계속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별로 타당하게 들리진 않거든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언뜻 듣기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을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어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더 하고 싶으신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 ... 못하고 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9호안건설명자

지금 계속 공공성 부분인데요.

이 공공성 부분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재가요양 부분에서는 민간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재원은 아니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보험공단에서 돈이 수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있고, 정책을 펴고 돈을 주는 곳에서 또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그쪽에서의 평가는 뭐 서울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공공성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시립, 구립 이렇게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 그런 노후우를 갖고 있고 인적 자원,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해서 들어가서 주면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이나 질이 높여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습

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000 위원

15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다음에 369페이지 과업내용에 보면, 다와 라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 부분인데, 동일한 기관에서 15년도에 서비스 체계 협력 방안 연구라는 주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고요.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이 ... 서비스의 공공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지금 신 정부가 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라고 공약화했고, 이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걸로 지금 입장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이 부분하고 어떻게 선후관계가 있는 건지,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려고 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을 건데, 지금 연구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두 가지를 ...

제9호안건설명자

여기서는 사회서비스를 주는 분야 중에서 하나가 요양보호사 재가장기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방문요양기관에 그분들에 대한 공단, 직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2015년도 연구나 이런 건 그런 것들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금 있는 것도 있어요, 재가장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일부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단에 대해서 장기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 연구를 통해서 여기도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장기요양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장기형 서비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있는데 요양시설도 개인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 시설장과, 기관장과 종사자의 문제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운영자들이 못하겠다 하고 있고, 종사자들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하고 있고, 거기 중간에서 이용자들이라든지 보호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요양시설도 저희가 하나의 우리가 정부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큰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데, 설립 주체별에 대한 요양기관, 요양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분석해서 유형별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공단은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거고요.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9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주심교수님.

000 위원

저는 이거를 논의 필요라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혹시 그 이전에 실태조사나 이런 게 ... 됐나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아닌 상황인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조사내용이나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갖고 지금 이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연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이나 목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서비스공단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서비스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서비스 내에서 아마 다루어지는 전체 큰 그림은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그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약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는 거고, 중앙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고 수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도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생각하시는 걸로는 ... 의하면 그 이후에 재가서비스까지 고민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이래서 이 연구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이 예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아까 영리와 비영리 조사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황조사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기초자료가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연구는 가능한 연구죠.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연구원 셋이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 원 장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이해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000 위원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원 장

저는 진짜 질문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얘기 저 얘기는 하는데,

000 위원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상당 부분 잘 보셨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제도적인, 이건 굉장히 제도적인 부분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분명한 것이 이건 법률에 의해서 ... 되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회서비스공단 관련해서 정말 폭넓게 검토해야 될 규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오히려 사회서비스공단이 뒤로 확 미뤄졌다고 하면 지금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목전에 두고 사업을 공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000 위원

중복성도 답변 안 하신 거죠?

000 위원

예, 안 한 거죠.

00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존 연구에 대한 복지재단에서,

000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디펜스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의 속성하고 이 장기요양서비스가 갖는 속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그림을 그려준다고 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안에서 특성이나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요양시설에서 받는 요양서비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가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다라는 게 의도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갖고 유추를 해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편적으로는 이 과업지시서에 드러나는데, 체계적으로 지금 제시가 잘 안 돼서 이게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000 위원

그게 서울형 장기요양서비스 아닌가요?

000 위원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00 위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으나.

000 위원

예,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000 위원

예, 맞아요.

000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서비스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 원 장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주무부서에 계신 분이 잘 알고서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저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진짜 드네요.

000 위원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해 가지고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

용역 해봤자 말짱 꽝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걸 바꿔 가지고 더 개편해서 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용역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연구원 3명이서 진짜 장기요양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택에서 서비스 받는 것, 그다음에 요양사의 급여 문제까지 다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서 드러나는,

000 위원

그런데 그 실태조사가 이 실태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000 위원

예, 다른 거죠.

000 위원

그 얘기예요.
... 다르다.

000 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으로는 좀 부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 원 장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00 위원

저는 그것과는 별도로 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뭘 할 수 있어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아주 실질적으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게 조금 답답한 거죠.

위 원 장

그러면 조금 구체화시키라는 식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좀 구체화해서 다시 와라.

000 위원

연구방법 내용,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사해 온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갖고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요.

위 원 장

그렇게 하죠.

000 위원

뭐 문헌 검토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조사를 할 건지 그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걸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주심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쓰시고, 저희는 일단 심의는 하는 걸로 하죠.

제9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000 위원

저는 적절하다고,

위 원 장

손 드셔야죠.

(거 수)

간 사

세 분이 찬성하셨고 부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 원 장

예, 본 안건 부적정한 걸로 결론되었습니다.

마지막 안건 하겠습니다.

제10호 안건

(가칭) 서울과학기술연구원 설립·운영 세부방안 연구용역

(설명자 입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본인 소개하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호 안건 설명

제10호안건설명자

안전총괄본부 안전기획팀장 이철희입니다.

위 원 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0호안건설명자

가칭 서울과학기술연구원 설립·운영 세부방안 연구용역 실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직 내외부적으로 서울시가 필요한 각종 도시 인프라 등에 대한 R&D 사업 등 기술연구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6년 6월 달에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추진계획을 방침을 가졌고요.

그리고 16년 12월부터 17년 5월까지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용역 실시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을 활용한 서울시의 도시사회 관련 현안 해결 및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과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직접연구를 포함한 서울시 과학기술 R&D 컨트롤타워 및 R&D 사업 총괄 에이전트 역할의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선행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진이나 풍수해,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안전대책하고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대책 등 주요 도시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조직 설립·운영 추진을 위해서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

적인 타당성하고 최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하고,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환경생태, 자연재난, 산업경제, 기타 시정 핵심과제에 대한 직접 기술 개발 등 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로나 교량터널,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재난안전 분야 중심의 연구조직 설립하고 구성 및 운영방안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 안에는 연구조직의 비전하고 그리고 인력·예산규모 그리고 조직체계, 형태, 그리고 연구수요, B/C 분석 등을 포함한 기대 효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연구수행 등 효율적인 연구수행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시재난 안전 등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직접 기술개발 및 연구수행 필요성,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국책연구소 대학 등 기존 연구조직과의 중복 문제 등 직접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자연재난, 산업경제 분야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수요 및 국내외 사례 조사, 그리고 직접연구 및 직접 기술개발을 통한 향후 활용방안하고 기대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번 용역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수의계약 사유는, 이번에 연구원 설립·운영 세부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일단 용역 주체로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한국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 분야 국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기술연구원은 국가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국토재해 대응 기술, 고성능 건설자재 건설에 관한 연구하고 국가 건설기술 정책 수립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및 재난방재 분

야 중심의 연구조직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가 출연기관이므로 연구기관 조직체계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걸로 판단되고, 그리고 이 연구기관 외에는 짧은 용역기간 동안 작은 예산으로 도시기반이나 재난, 조직 등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연구기관을 찾기 어려워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연구는 이 기관에서 했습니까?

제10호안건설명자

선행연구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되어 있고,

위 원 장

누가,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제10호안건설명자

주체는,

000 위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10호안건설명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위 원 장

그러면 그쪽에서 타당하다고 한 기관이 세부방안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이해도도 높고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10호안건설명자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쪽 부분에 처음에 용역을 할 때 분야를 과학기술, 과학 쪽으로, 산업경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과학기술연구원은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희는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건설 그리고 점검 그리고 보수·보강 그리고 장수명화 이런 것에 조금 핵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오히

려 거기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타당성연구에서 결과가 타당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제10호안건설명자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필요하다.

000 위원

필요하다?

제10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이게 별도 조직으로 필요하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런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나온 겁니까?

제10호안건설명자

결과는 기존에 있는 외부 연구기관들도 많고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산학연 연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연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도시기반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연구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봤습니다.

000 위원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건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동감하는데,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10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필요로 하는 이런 분야들이 보니까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못하고 아니면 인력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확충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건 전혀 무시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제10호안건설명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연구하게 되면 조직 체계라든가 이런 고민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서울연구원은 인문사회 분야의 서울시 관련 일들을 연구를 총괄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기술분야, 도로 인프라 등 각종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앉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원장은 그쪽 서울연구원 쪽이 나올 거고, 그건 조직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어느 분야에 치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이제, 어떻게 할지는, 그리고 서울연구원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술 쪽 분야로는 예를 들어 물연구원이라든가 품질시험소, 농업기술센터 그런 기존에 연구기관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위원

기존에 기술 분야의 각종 연구 ... 염두에 두고 이름을 이렇게 서울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신 건가요?

제10호안건설명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연구조직들이 공무원 신분인 조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염두를 일단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연구원은 있지만, 그동안 이쪽 이공계 계통으로는 외부용역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최소 500건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기술 쪽은 용역단가도 비싸고 해서 최소한 5, 600억은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 외부용역이다 보니까, 기술축적도 어렵고 연계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기술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000 위원

혹시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이런 과학기술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10호안건설명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지난번 연구결과에 유사한 것들은 가지고 있는 걸로 몇 군데 파악은 됐습니다.

000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욕, 런던, 파리, 어느 곳을 가 봐도 이런 ... 하는 데는 없어요.

000 위원

경기도는 뭐가 있죠?

제10호안건설명자

경기도는 진흥원인가 있습니다.

000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000 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이쪽 과학기술 영역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대학들도 사실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과연 얼마 정도의 인력들을 데려다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되게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재난 관련된 이슈라든지, 세계 최고의 기관, 대학들도 이거 하기 어려워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뭐 잘하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샘플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참 저한테도 맨날 이거 뭐 해 달라

고 날라 오던데 ... 사실은.

제10호안건설명자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사실은 저희하고 상당히 많은 커뮤니테이션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용역을 하게 되면 짧은 기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도 공유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전담조직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럴 때 서울시가 과연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연구기관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것까지도 연구대상에 일단 범위에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호안건설명자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심사 의결하실 때 잘 받아주시고, 예산도 사실은 빡빡하게 저희가 짰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10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이 안건은 사실 주심위원님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직 쪽이 이미 검토를 한번 하셨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000 위원

그전에 이게 지금 이미 설립·운영하겠다의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겁니까?

위 원 장

그런 것 같아요.

타당도는 이미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용역이거든요.

000 위원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전에 과학기술연구원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포커스가 산업화고 4차 산업혁명 이쪽에 포커스가 두어졌어요.

그래 갖고 사실 이 부분을 포괄해서 봐야 되는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 자체를 또 경제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산업지원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흘러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분석이나 또 했던 용역 수행업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성실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 B/C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 용역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우선수요가 나오는 게 도시 인프라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선결과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지니까 조금 핀트가 어긋났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 갖고 일단 경제파트에서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고, 기존 그쪽에서 했던 용역 자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그 용역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그걸 기본으로 해서 후속으로 그럼 도시 노후 인프라나 이쪽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건지, 과연 기관이 필요할지, 시에 있는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업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쪽 연구에서 됐지만, 이쪽에서 새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분야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B/C분석 자체도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는 거고요.

000 위원

이거는 지금 서울과학기술연구원 설립·운영 세부방안 연구용역인데, 완전히 의미가 다른 말씀인 거예요.

000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고,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별도로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크게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별도 기관으로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을 갈지, 그러면 서울시의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방안들을 연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000 위원

처음 말씀하신 산업기술진흥원 같은 그런 타당성을 조사 ... 이제는 SOC와 관련된,

000 위원

그래서 이게 진흥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다른 도시에 있냐라는 부분들,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원은 사실 그런 비용이 안 드는데, 자연과학이나 이쪽 일반 토목이나 건축 이쪽 노후 인프라 관련된 쪽은 사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계속 변화되는 기술에 대한 적응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 자체를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 단발성으로 끝나고 계속 연구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계속 순환보직이 되면서 이 연구과정이 축적이 안 되고, 그냥 분산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이걸 총괄적으로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외부 대학이나 기존 연구소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협업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진짜 핵심적인 부분들로 시에서 계속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관리를 할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그러니까 용역수행을 어떻게 진행할지 관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요.

그래서 일단 외부의 용역은 협업 과제라 하더라도 담당하는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과제에 관련돼서는 시의 자체적인 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관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00 위원

그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빅데이터도 있고 인공기능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을 하는 놈들이 있는데, 서울연구원에 몇 사람 들여놓고 거기다 시스템 잔뜩 때려박고 하라고 그러면 금방 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 보내드릴게요.

... 그거 관리를 못해서 연구원을 새로 만들어서 엄청난 오버헤드를 시민들한테 지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 ... 아닌가 싶어요.

000 위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과학기술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목적은.

도시 문제, 뭐 대기 질이든지 노후하수관로든지 싱크홀이든지 그다음에 한강의 상수원이든지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냐라는 것은, 아까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잘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소하고 일부분은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기술연구원, 몇 가지 연구기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농업 관련된 데도 있죠?

000 위원

예.

000 위원

이런 것들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일부 기능을 전환시켜서 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자재를 직접 사고 모든 사람을 직접 고용하고 이것은 현재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책 기술연구소들도 분야별로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축소되고 통폐합되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방법은 융복합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지난번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이공계 쪽 시각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000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하시겠다고 그러면 100% 찬성을 하겠는데, 여기는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000 위원

물론 새로운 조직을 만들죠.

000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를 하는 게 물연구원은 상수원 수질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그 외에는 사실 어떤 시설물, SOC와 관련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강의 수질 관련된 그런 것도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한강의 수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SOC 관련된 시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싱크탱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일부분은 또 우리가 직접 필요한 부분은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시설물과 관련된,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싱크탱크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00 위원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그냥 논리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어떤 걸 하시겠다는 것처럼 들리냐면, 도시 문제 해결형 연구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이런 정도 같아요.

위 원 장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000 위원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 분의 얘기가 그걸,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별도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연구원에서 하나의 싱크탱크와 같은 부서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각종의 대안들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제목하고는 그게 안 맞는 거죠.

000 위원

여기에서는 과학기술진흥원 재단 설립 타당성 여기서는 노후화, 시설물 노후화와 그다음에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걸 할 수 있는,

000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필요한 건지, 연구부서가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논의해 보겠다라고 지금 그런,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들리는데요.

000 위원

지금 하는 거는, 사회인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공 쪽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000 위원

타당성 연구가 ... 조금 의도하던 대로 안 됐고, 그거에 말하자면 약간 보완해서 한 번 더 뭔가를 어세스 해봐야 되는데, 이런 제목으로 나온 건가요?

000 위원

타당성 연구가 의도한 대로 안 됐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게 이거는 사실 도시 인프라가 이쪽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주관부서가 가다 보니까 산업에 포커스가 주어졌던 거고요.

사실 타당성 자체는 있는 걸로 나왔어요.

간단한 B/C분석에 아주 간략하게 하긴 했는데,

000 위원

4차 산업을 하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한 ...

000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시에서 가장 현재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도시 자체가 늙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에서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 다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갖고 다루겠다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000 위원

제가 좀, 재미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이 학술용역의 제목을 보게 되면, 전체 용역에서 이런 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 조직을 만들겠다를 타깃으로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타당성만 검토를 했지 안에 연구조직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얘네들을, 그 업무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후속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었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그 전체 용역에서 사실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었고, 향후에 사회 안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전문

연구할 수 있는 조직, 기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정도만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서는 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어떤 대학 연구소든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기존에 많은 연구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게 더 타당한 건지가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기관으로 하는 게 약간 그렇다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서울연구원도 보게 되면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문사회 분야냐라고 하는 것에 얘기해 보면 물론 그런 성격이 강하긴 하죠, 기술 분야보다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조직들에 대한 업무를 쭉 규정지을 때 보면, 서울연구원의 어떤 업무영역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물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의 업무만 여기에다 부여할 거냐를 하다 되면, 사실 이게 별도 조직 만드는 건 그렇게 타당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게 먼저 검토가 되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런 식의 과업내용을 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 원 장

제 생각에는요, 이게 지금 주무과가 안전총괄과거든요.

안전총괄과가 주동이 돼서 만들 수 있는 연구원이라는 개념하고, 서울시의 기획실이나 제2부시장이 주동이 돼서 만들 수 있는 연구원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안전총괄과를 끼워 넣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굳이 왜 이 과가

나서서 자기 몫을 얘기하게 된다면, 사실 중요한 총괄과 조정의 역할은 못할 연구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000 위원

제가 그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제가 작년 이맘때까지 00직을 맡을 때 제가 처음에 기안을 했었고요.

위 원 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전 그건 이해가 돼요.

000 위원

기조실에서 기안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텝을 밟았고, 그러다가 우리 시에 과학기술연구팀인가요?

경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연구는 경제진흥본부 내에서 했고,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진행이 됐는데, 너무 도시 문제 해결형 분야에 대한 것이 빈약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고,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게 된 것은 안전총괄본부가 2부시장의 1번입니다.

위 원 장

기획실 같은 존재죠.

그거는 이해가 돼요.

000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게 됐고요.

위 원 장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제10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그러면 마음의 결정을 하시죠.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000 위원

이 상태로요?

000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위 원 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제안을, 그런데 이게 주심위원님이 없어서 어떻게 명확하게 하면 될지,

000 위원

이건 다양한 관리방안 연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대안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거지요.

000 위원

이거는 서울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전제로 하고, 운영 세부방안을 연구한다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위 원 장

예.

000 위원

...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그건 옳지 않은 거고, 실제로 이게 과연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 어떤 형태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서울시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능들을 종합하고 운영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거기까지는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위 원 장

표현을 어떻게 해요?

000 위원

도시과학기술,

위 원 장

도시 안전 전반에 관한 세부 연구조직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명을 해주십시오.

000 위원

이 부분 자체가 용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게 내부조직을 정리해서 통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 원 장

그렇죠.

000 위원

있는 부분이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000 위원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품질시험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품질시험소는 도로 포장 관련된 곳이고, 물연구원은 수질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 말 그대로 보건환경 관련된 이런 각 분야 야별로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통합하고 그와 덧붙여서 다른 걸로 갈 수도 있고, 이것만 통합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어떤 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같이,

위 원 장

그걸 검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000 위원

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게 어떤 외부로 별도로 만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지 말지,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위 원 장

저희들이 그 얘기라니까요.

000 위원

서울연구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덧붙여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거죠.

000 위원

대안을 검토하는 거죠.

000 위원

연구원을 통합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 말고 별도의 하나 만들고 하는 안이 있고,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좀 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검토하셔서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00 위원

연구범위 쪽은 아까 얘기했던 안전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거는 ... 어떤 조직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걸로.

위 원 장

그럼 그렇게 지적들을 해주시죠.

제목은 알아서 정하라 그러고, 그런데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한정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000 위원

한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하라.

000 위원

서울시과학기술 관리를 위한 대안 연구가 답입니다.

위 원 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10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그렇게 000 위원님 써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쓰는 걸로 하고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아홉 분.

위 원 장

그래서 이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셔야 될 게 개인별 심의 의결서와 총괄 심의 의결서에 서명 꼭 해주셔야지 오늘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한 안건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 사

총괄적으로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열한 분이 찬성하셔서 적정으로 됐고요.

2번은 한 분만 찬성해 갖고 부적정이 됐습니다.

이건 보완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3번은 열한 분 찬성하셔서 적정이 됐고, 4번은 일곱 분이 찬성을 해서 적정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5번은 한 분이 찬성을 해서 부적정이 됐고, 6번은 열한 분이 찬성해서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7번은 두 분이 찬성해서 부적정으로 의결이 되었고요.

8번은 일곱 분이 찬성해 주셔서 적정이 됐습니다.

9번은 세 분이 찬성을 해 갖고 부적정이 됐고요.

마지막 10번은 아홉 분이 찬성을 해 갖고 적정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조업 관련한 용역은, 서울시 작년에 서울시 도시형 상공인 육성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에 제조업 전체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봉제산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00 위원

봉제산업도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었죠?

간 사

예.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6분 폐회.